

# 몽골불교 중흥으로 '희망찾기'



되살아나는 몽골불교 현장을 가다

5월 28일, 3시간 10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푸르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었다.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시기는 고작 6, 7, 8월 3달에 불과한 만큼 나무들은 반가움에 떨며 푸르른 잎을 발산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둔각)과 고려사(주지 활안)가 한몽불교우호교류 증진차원에서 진행한 한몽 합동법회와 불화 및 민화전시회 취재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몽골을 다녀왔다. 현지에서 본 몽골불교는 이제 막 새싹을 틔고 있었다.

### 모든 것을 깨어난 몽골



몽골은 인구가 250만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영토가 넓다.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의 드넓은 광활한 초원, 북부의 울창한 산림, 남부의

### 유목 생활로 다져진 무욕의 삶

사막, 지하에 매장된 금, 석유등의 광물... 한때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몽골제국을 비롯 위구르, 흉노, 돌궐과 볼리우며, 중국역사의 반을 차지한 몽골족은 예전이나 지금이

나 변함없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초원을 떠돌며 양과 염소, 소를 방목하는 유목민인 몽골인들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했다. 바로 이방인을 감싸안으며 그들에게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는 마음에 있다. 또 지배자가 되어 몇 백년을 타지에서 살아가도 유목민의 정신을 잃지 않고 타민족의 문화를 한없이 존중해준다. 또 힘이 약해지면 미련없이 넘겨주고 초원에 돌아와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무욕의 생활을 한다. 피지배자가 됐을 때는 종교, 사상, 문화등을 가지리 않고 일단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것에 맞는 것을 골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끈기가 그것이었다.

### 몽골불교 현황

몽골불교는 1920년 공산화 이후 700여 개에 이르던 사찰이 3~4개 사찰만 남고 모두 불타다. 당시 성인 남자 50%인 7만 여명이었던 스님들은 강제 환속당하고, 거부한 수만명의 스님은 처형됐다. 1917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으면서 수난은 시작된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8대 북극칸을 제정일치 주장으로 모셨으나 4년

### 90년 종교 자유화 되며 중흥 몸짓

후인 1924년부터 소련의 간섭에 의해 폐위됐다. 또 독립영웅 수마트라 장군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도 모두 숙청됐다.

1990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몽골불교는 다시 부흥의 몸짓을 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 사원에 300여 명의 스님이 있으며, 현재 인구 250만 여명 중 25%가 불교, 70%가 불교와 정령승매가 결합된 신행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3%는 이슬람, 1%는 기독교도이다.

### 새롭게 중흥하는 몽골불교

몽골불교는 대표적 사찰 간단사와 예르

덴초, 다시초링 사찰을 중심으로 법회와 승려양성등이 이뤄지고 있다.

몽골의 대표적 사찰인 울란바트르 간단사는 1940년까지 러시아 군대의 마구간으로 쓰이던 곳. 미국 부통령 방문시 종교의 자유를 보이기 위해 절로 급조했고 승려들은 환속한 사람들을 급히 데려왔다. 당시 다시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모두 7명. 7명의 스님을 중심으로 몽골불교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동안 3명의 스님이 열반에 들고, 현재 단장람, 이시삼초, 도제장첸 스님등 4명이 승가대학을 세우고, 200여명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서남쪽으로 370km 떨어진 몽골의 옛수도 카라코룸에

### 간단사 등 공부 열기 가득

징기스칸의 29대손인 아부타이 사인한이 세운 외몽골 최초의 사원 예르덴초, 몽골 제국의 궁전인 만안궁의 석재를 이용한 예르덴초 사원은 108개의 탑으로 둘러싸여 있다. 14개의 건물과 23명의 스님이 거주하는 예르덴초 사원은 현재 대대적 보수공사가 진행중이다. 본래 미륵불의 본당이었던 다시초링사원은 티베트어, 고어, 산스크리트어, 러시아어, 중국어에 능통한 前 총무원장 담마자우 스님이 개교한 다시초링 불교대학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 몽골불교 활성화 프로젝트 박차

1996년 전 국민의 성금을 모아 간단사 법당 본존불로 26.5m높이의 관음보살 입상을 건립한 몽골불교계는 7월 21일 바블라 린포체 사리탑 점안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몽골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 덕산리 오오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덕산리 오오프로젝트는 몽골의 남산을 몽골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사찰인 아미타바사와 서비스센터, 박물관, 문화원, 갤러리, 도서관, 불교대학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지성



예르덴초 사원에서 독경하는 스님들.

인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정신을 살리고, 환경보존과 인류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아스팩(asfak)과 불교와 과학의 연계를 시도하는 유펜베르텐(upenden)학회, 몽골지성인 여성들의 모인인 쿠프렌드들의 단체를 스님들이 이끌고 있다. 만토히 여학교(고아원) 설립등 몽골에서는 다소 생소한 사회복지에도 첫발을 내딛는 등 선진적인 이론과 실천의 결미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프레발 스님(몽골불교미술대학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스님들은 불교의 전통 잇기에 적극적이다. 스승들로부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몽골전역을 돌며, 밀

### 국가지원속 불교 발전 도모 계획

교수행 비법을 전수받아오고, 문헌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시절 학살당한 승려들의 유해를 수습해 위령탑을 건립 중에 있다.

특히 프레발 스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전통문화 부흥운동을 펼칠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2006년 4년제 몽골불교미술대학 졸업생들을 전원 고향으로 돌려보내 전통 및 불교문화를 되살리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프레발 스님은 "몽골불교는 충분히 미래의 희망이 있는 만큼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몽골=김원우 기자

## 개원 1주년 맞은 몽골 고려사 내년, 법당·한몽문화원 등 건립 계획



다시 초령사원내 게르법당으로 건립한 고려사에서 6월2일 개원 1주년 기념 한몽법회가 열렸다.

내년 7월 몽골에 고려사를 비롯 국제불교 박물관과 한몽문화원 건립봉사가 시작된다.

고려사는 최근 몽골정부로부터 자이승국립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5천평, 울란바토르공항 인근에 4천평의 토지를 기증받았다.

자이승유적지 부근에는 세계불교박물관, 세계불교승가대학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고려사에는 한국불교를 알리고 교민들의 의지처가 될 전통건축 양식의 법당과 몽골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대한불교 진흥원 부설 한몽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몽골 고려사주지 활안은 6월 2일 게르법당이 마련된 다시초령사원에서 몽골고승 단장람 스님 금강선원장 헤거 스님을 비롯 아시아평화협의회 사무총장 불강 스님, 몽골불교문화대학장 프레발 스님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1주년 한몽교류법회를 개최했다.

## 제1회 한국불화·민화전 개최 불교진흥원, 전시작품 61점 모두 기증



몽골 국립 자나바즈라 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불화 및 민화전 개막식 장면.

초원의 나라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가 꽃을 피웠다. (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둔각)은 6월 1~7일 국립 자나바즈라 국립 박물관 1층 전시관에서 제1회 한국불화 및 민화전을 개최했다.

현지 언론의 초점을 받는 등 대 성황을 이룬 한국불화 및 민화전에는 부처님의 설법모습을 담은 김익흥 교수(불교문화센터)의 영산회상도, 이영자 교수(불교문화센터)의 자비화신을 표현한 수월관음도를 비롯 불교문화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인 불화 15점과 한민족의 정서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민화 44점등 총 61점이 전시됐다.

이에 앞서 1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원태 주몽골 대사, 몽골대통령 수석보좌관 체렌담바, 아시아 토포밀 보도르만양, 몽골국립대 한국어과 남정주 교수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60여점을 모두 한몽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국립 자나바즈라 국립박물관에 기증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한국과 몽골 작가들이 공동으로 전시회와 '민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동승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생활의 지혜

#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 【10월 1일】
-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 |                 |                |
|-----------------|----------------|
| 1월 · 자비와 보시     | 7월 · 애육과 담욕    |
| 2월 · 선행과 악행     | 8월 · 올바른 삶     |
| 3월 ·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 9월 · 친구와 가정    |
| 4월 · 중도와 반성     |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
| 5월 · 인내와 노력     | 11월 · 자유와 행복   |
| 6월 · 애착과 고통     | 12월 · 진리와 무상   |

##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 번뇌, 업, 고통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